

혼인 예식

정혼자들과 모든 이가 일어선다. 두 증인을 정혼자들의 양편에 세우고, 사제는 아래의 말이나 비슷한 말로 정혼자들에게 혼화를 한다.

- ✚ 두 분이 오늘 이 성당(자리)에 함께 온 것은, 교회의 성직자와 공동체 앞에서(또는, 이 혼인을 주례하기 위하여 주교님에게서 파견된 본인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) 두 분이 혼인하려는 뜻을 주님께 엄숙히 확인받기 위해서입니다. 그리스도께서는 두 분에게 부부 사랑의 복을 넘치도록 내리실 것이고, (일찍이 거룩한 세례로 축성하신 두 분을 오늘 특별히 혼인성사로) 풍요롭고 굳건하게 하시어, 두 분이 한평생 신의를 지키며 혼인 생활의 모든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. 이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두 분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.

질문

정혼자들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혼인하려고 하는지, 또 서로 신의를 지키고 자녀를 받아들여 양육할 뜻이 있는지 사제가 물으면 두 정혼자는 각각 대답한다.

- ✚ 신랑 아무와 신부 아무는 어떠한 강박도 없이 완전히 자유로운 마음으로 혼인하려고 합니까?
- 예, 그렇습니다. ● 예, 그렇습니다.
- ✚ 두 분은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일생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까?
- 예,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. ● 예, 사랑하고 존경하겠습니다.

신랑 신부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, 상황에 따라 아래의 질문을 생략할 수 있다.

- ✚ 두 분은 하느님께서 주실 자녀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, 그들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기르겠습니까?
- 예, 그렇게 기르겠습니다. ● 예, 그렇게 기르겠습니다.

합의

사제는 정혼자들의 합의를 요구한다.

- ✚ 두 분은 이제 거룩한 혼인 계약을 맺으려는 것이니, 서로 오른손을 잡고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두 분의 뜻을 밝히십시오.

정혼자들은 서로 오른손을 잡고 차례로 말한다.

신랑

- 나 아무는 당신을 아내로 맞아들여
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, 성할 때나 아플 때나
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.

신부

- 나 아무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아들여
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, 성할 때나 아플 때나
일생 신의를 지키며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할 것을 약속합니다.

다만 사목적 이유로 더 낫다고 여기면 정혼자들의 합의를 질문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. 이때에 정혼자들은 “예, 약속합니다.” 하고 각각 대답한다.

합의 수용

이어서 사제는 신랑 신부의 합의를 받아들이면서 말한다.

- ✚ 주님께서는 두 분이 교회 앞에서 밝힌 이 합의를 당신 은혜로 확고하게 하시고 두 분에게 복을 가득 내리실 것입니다.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.

사제는 참석자들이 하느님을 찬양하도록 권고한다.

- ✚ 주님을 찬미합시다.

모두 응답한다.

- ◎ 하느님, 감사합니다.

반지 축복과 교환

사제는 말한다.

- ✚ 사랑과 신의의 표지로 서로 주고받는 이 반지에 주님 친히 ✚ 강복하소서.
- ◎ 아멘.

반지에 성수를 뿌릴 수 있다.

신랑은 신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며 말한다.

- 나의 사랑과 신의의 표지로
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 주십시오.

신자일 때에는 다음을 덧붙인다.

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.

신부도 신랑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며 말한다.

- 나의 사랑과 신의의 표지로
당신께 드리는 이 반지를 받아 주십시오.

신자일 때에는 다음을 덧붙인다.

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립니다.